



즉시 배포용: 2018 년 2 월 8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인플루엔자 비상 사태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확대할 것을 카운티에 지시하는 주지사의 조치

지난 주 이후 실험실에서 확진된 전체 독감 사례 35 퍼센트 증가 그리고 입원 건수 2 퍼센트 증가

1 월 25 일 발령한 주지사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후, 약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2 세에서 18 세 사이의 5,400 명이 넘는 뉴욕 주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독감 진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카운티에 긴급 지원금을 승인할 것을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카운티에 환급액을 더 지급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도록 재정 지원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58 개 지역의 모든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여전히 필요한 뉴욕 주민들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연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감 진단 및 입원이 전염병 비율 수준으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백신 내성이 강한 독감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감 백신을 쉽게 접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을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고 막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험실에서 확진된 15,753 건의 인플루엔자 사례와 확진된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뉴욕 주민 2,349 명을 통해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보고된 이 수치는 2004 년에 보고가 시작된 이후 두 카테고리 모두에서 가장 높은 주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에 발생한 기록적인 11,683 건의 확진된 사례와 2,221 건의 입원 건수를 증가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의 웹 사이트는 각 카운티의 연장된 활동으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 스톱 매장(one-stop-shop)의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각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헬스맵 백신 파인더(HealthMap Vaccine Finder)는 또한 뉴욕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장소를 www.vaccinefinder.org에서 알려줍니다.

Cuomo 주지사는 독감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독감 징후와 증상에 관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민들을 파악한 후 지원하기 위해 요양소, 양로원, 노인 센터, 노숙자 쉼터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강화된 지원 활동에 다시 집중할 것을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에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s)는 학생 및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결석 및 결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학교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예방 접종 활동과 연계하기 위해 지역 학교 교육감들과 협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보장될 것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든 뉴욕 주민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서 기침을 할 때 입을 가린 손을 씻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독감을 예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독감 백신을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뉴욕 주민에게 독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s) 및 기타 주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독감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이전에 발표한 조치들](#)을 확대하여, 주지사는 또한 다음 조치들을 수행하도록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습니다.

-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및 시설 소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교 간호사를 대상으로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와 함께 뉴욕주 전 지역에서 전화 회의 및/또는 웹 세미나 주최.
- 진행되고 있는 뉴욕주 전 지역의 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에 대한 관련 직원들의 역할에 관한 공보물을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주정부 직원들에게 배포.
- 보건부 웹 사이트와 약국 웹 사이트에서 백신의 유효성, 대상 연령,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과 협조.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주문하거나 기업 및 개인이 인쇄 할 수 있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교육 자료의 게시 권장.

지난달 주지사는 약사가 2 세에서 18 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전 지역으로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뉴욕의 어린이와 가족들의 백신 접종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2 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약사가 18 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면역제를 투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뉴욕주 교육법(education law) 조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는 방문 전 약국에 미리 연락하여 이 연령대의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24 개월 된 아이가 있는 학부모 및 보호자 또한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결과로 5,400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약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9 주 동안, 뉴욕 전 지역에 인플루엔자가 지리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독감 유행 시즌 동안, 2 월 3 일 현재까지 실험실에서 확진된 독감 사례는 52,567 건으로 보고되었으며, 11,802 명의 독감 환자가 입원했으며 독감과 관련하여 세 명의 소아가 사망했습니다. 작년 독감 유행 시즌에는 뉴욕에서 12,912 명의 독감 관련 환자가 입원했으며 8 건의 소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4 년 동안 총 25 건의 독감으로 인한 소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 년에 평균 10,571 명의 독감 관련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질병 관리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한 독감 유행 시즌 동안에 계속해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관리 센터(CDC)는 매우 아프거나 심각한 독감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독감 항바이러스 약물로 조기에 치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항바이러스 약물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48 시간 이내에 사용하기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번 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항 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단일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 독감 시즌에 뉴욕주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2012-2013 년 독감 시즌 이후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보건부는 항 바이러스제 내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추세 형태로 나타날 경우 임상 의사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보건부는 인플루엔자 항 바이러스 약물, 특히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 현탁제 및 일반 오셀타미비르 캡슐의 특정 약물 제형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약물 제공업체들이 이 약물의 잠재적인 출처를 모두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물 제공업체들과 협력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건부는 백신 공급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공급업체에 미리 전화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아플 때 집에서 지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이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일부 바이러스와 달리 독감은 비누와 뜨거운 물에 쉽게 죽습니다.
-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손에 있는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비누와 뜨거운 물로 손을 최소한 20 초 동안 자주 씻으십시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만들어진 손 소독제를 휴대하십시오. 알코올을 최소 60% 이상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에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시작된 이후 최대 7 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독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얼스터 카운티 보건부(Ulster County Department of Health)의 보건 및 정신 건강 담당 커미셔너 겸 뉴욕주 카운티 보건 공무원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y Health Officials, NYSACHO)의 회장인 Carol Smith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카운티 보건 공무원 협회(NYSACHO)는 독감 백신 접종을 받는 우리 시민의 수를 늘리는 주지사님과 뉴욕주 보건부(DOH)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백신 접종은 잠재적인 독감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독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influenza/seasonal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